

노키즈존, 선택이 아닙니다.

무더운 휴일, 아이들과 함께 지역에서 운영하는 사설 도서관으로 나들이를 갔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의 김소영 작가와의 만남이 예정된 날이기도 했고, 동화를 들려주는 행사도 있었습니다.

'어린이라는 세계'. 이 책을 처음 만난 것은 지인과 둘이 하룻밤 묵었던 춘천의 어느 북스테이였습니다. 여기저기 책들이 있어 집어 들어 읽을 수 밖에 없던 곳.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지만 우리 아이들을, 이 세상의 어린이들을, 나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존중하고 있었나. 아이들에 대해, 아니면 적어도 내 자식들은 내가 제일 잘 안다는 그 큰 착각에서 빠져나오라 알려 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나누고 싶은 여러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노키즈존'에 대한 얘길 하고 싶습니다. 작가님께서 이 주제가 논쟁의 주제가 되는 것 자체를 원치 않는다 하셨습니다. 마치 논쟁을 통해 찬반을 얘기하는 것 덕에 이것이 선택 가능한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우려 된다고요.

결론부터 인용하자면 "'노키즈존'은 명백한 차별이다. 불편을 주는 행동이 있다면 그 행동을 바로잡아야지, 그 대상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어린이의 존재, 존엄에 대한 부정이며 약자에 대한 가장 손쉬운 방법, 차별 이라는 것."

저는 그동안, '노키즈존'이면 아이들과 안가면 그만이지, 다른 곳을 가면 되지.. 이정도로 생각해왔습니다. 헌데 제가 틀렸더라고요. 이 사회가 그렇게 되도록 그냥 손 놓고 방관하는 것은 내 아이들을 냉소적이고 차별받는 세상에 무방비로 내놓는 것이고 '알아서 피해봐, 알아서 막아봐!' 방치한 셈은 아닐까? 하고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 현재, 그 어떤 식당도 카페도 '노휠체어존' 이라고 써 붙이지 않는다. 그랬다간 큰 비난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이

사회의 암묵적 합의인 것이다 "

더불어 함께 사는 공존과 공생이 당연한 사회이기에, 그것이 옳다고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노키즈존'이 사회적 합의를 얻어 아무 거부 없이 사용된 이후에 '노경기도민존', '노여성존', '노학부모존' 이런 곳이 생기면 우리는 계속 그런 곳을 피해 다른 곳을 가면 되는 것일까요?

어디까지 가능하고 어디부터 불가능한 걸까요?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가능한 걸까요? 이유는 사용자의 필요대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영업자분들의 고충을 몰라서, 그것들이 대수롭지 않아서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지 저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간의 기본적인 존엄을, 그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것을 위해 불편하더라도 방법을 찾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어린이를 선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어린이라는 이유로 입장을 거부당하는 것은 부당하며, 혹 불편을 끼치는 어린이가 있다면 제지를 가하거나 (혹은 싸울지언정) "NO!" 라는 편리한 차별로 손쉽게 해결해선 안 된다는 것.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경우' 딱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있을 수 없다.. 라는 말씀에 공감하고 동의했습니다.

무려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께서 쓰셨다는 어린이선언문 한 구절입니다.

**어린이를 책망하실 때에는 성만 내지 마시고
자세하게 타일러 주시오**

너무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우리 어른들이 이것을 포기하고 가장 쉬운 방법인 차별을 택한다는 것이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을 위해 차별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꽤 끼치는 아이들을 방치하는 부모나 양육자가 부끄러운 것이 자연스러운 일인 사회가 되면 좋겠습니다.